시공간 초월한 佛畵 어떤 모습?



이태승 作, '관세음보살 삼십이 응신도'



서수영 作, '미륵하생경변상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붓다랜드 – 佛陀Land' 展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월 4일까지

전통 불화부터 회화적 측면에서 재해석한 현대적 불화까지 한 자리에 모은 전시가 마련됐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 2월 4일(일)까지 개최하는 '붓다랜드 - 佛陀Land' 展이다.

이화자, 이태승, 정종미, 손광석, 김석곤, 서수영, 권지은 7인의 작가가 참여해 32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와 그 아름다움을 조명하고, 전통과 현대의 소통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시 제목인 '붓다랜드'는 부처님이 머무는 곳, 부처님의 세상인 불국토를 새롭게 명명한 것으로, 전통을 계승한 불화와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된 불화를 아우르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불화라는 공통된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작가 각자의 방식으로 불화가 지녀온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새로운 형태의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전통 불화의 표현방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새로운 양식의 변화를 가미한 작품과 순수 회화적 측면에서 불화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불화 특유의 조형성과 현대성을 조명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불화의 예술적 가치는 그 인식의 폭이 넓지 못했다. 종교화라는 고정된 생각이 순수한 예술로의 확장을 제한한 면이 없지 않다. 이번 전시는 7인의 작가들을 통해 불화의 전통성과 예술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하려 했다.

불화의 가치 새롭게 조명
전통 · 미래 가치 함께 모색
7인의 대표작 32점 전시

△손광석의 〈지장보살도〉는 기운이 넘치면서도 고요한 화면을 자아낸다. 손광석의 모든 작품은 화려한 색채와 화려한 구성에도 결코 번잡스럽지 않다.

△권지은은 모사에 충실하면서도 한 가지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 자신만의 해석을 통한 창의력이 돋보인다. 특히 〈삼신불〉에서 보여주는 비율감이나 세련된 선 처리는 현대적 미감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태승의 역작 〈관경변상도〉는 석가모니부처님이 많은 성중들에게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16가지 수행법을 알려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려불화의 전통적인 구도와 기법을 되살렸으며, 16관 사이사이에 사군자 등의 화훼를 금니로 그려 넣는 등 작가만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

△서수영의 작품은 전통 불화가 준수하는 정형화된 구도와 치밀한 형태의 묘사에 '우주'라는 세계관을 더하여 신비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김석곤은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기능보유자였던 덕문 스님의 화풍을 전수받아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다양한 시도와 고민, 노력을 함께해 나간다.

△이화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채색화가로 전통적인 불화가 아닌 일반회화로서 절의 풍경이나, 벽화, 탱화 등 한국적 미감의 소재를 즐겨 그렸다. 그 중 이번 전시에 출품한 〈염 I 〉은 온전한 부처의 모습이 아닌 박락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세월감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정종미의 오색보살도 시리즈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전 세대의 여성들에 대한 헌사인 동시에 현 세대의 모든 여성들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며 새로운 위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문의 / 031-637-0033

"이 땅의 예술가들에게…"

KoN(콘), 'The Farthest Way' 발매
예술가들에게 헌정하는 신곡



지난 연말 BBS 송년음악회에서 처음 불자들에게 선보인 한국 최초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가수, 뮤지컬배우, 모델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멀티 아티스트 KoN(콘)이 1월 23일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은 가장 먼 길이라는 뜻의 'The Farthest Way(더 파디스트 웨이)'이다. 이 곡은 자신과 싸워나가며 끝이 보이지 않는 예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에게 바치는 곡이다.

KoN(콘)은 "언젠가부터 주위의 많은 예술가들이 좌절, 포기하거나 심지어 안타깝게 고인이 되기도 하는 등, 하나 둘 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예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들이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밝혔다.

'The Farthest Way(더 파디스트 웨이)'는 6분 27초로 KoN(콘)의 곡 중에서 가장 긴 곡이다. KoN(콘)의 작곡과 신예 작곡가 김진환의 편곡으로 애절하고 장엄한 사운드가 돋보이며, 그간 KoN(콘)의 앨범 작업에 함께 해 온 아코디언 연주자 Alexander Sheykin(알렉산더 쉐이킨),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마스터링 엔지니어 Chris Gehringer(크리스 게링거)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동참했다. 뮤직비디오 역시 지난 KoN(콘)의 앨범 'Zealotry(젤러트리)' 뮤직비디오에서 탁월한 연출로 주목받았던 성승한 감독, 최영민 촬영감독 콤비가 다시 참여해, 제주도의 풍경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영상미를 보여준다.

KoN(콘)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어릴 때부터 신심 깊은 불자이자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로, 새로운 집시라는 '누에보 집시(Nuevo Gypsy)' 장르를 만들었다. '누에보 집시(Nuevo Gypsy)'는 집시, 탱고, 재즈 등 여러 음악 장르를 섭렵해 새롭게 창조한 분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집시바이올린 앨범으로 유명하다. 2010년 첫 앨범인 'Nuevo Gypsy(누에보 집시)'를 발표한 후 2013년 'Nuevo Gypsy(누에보 집시)' 2집을 발표했다.

한편, KoN(콘)은 이번 앨범 발매 후 미국 일정을 소화한 뒤, 올 상반기에 있을 그의 단독 콘서트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BTN불교라디오, '두 손 모음' 캠페인 화제

법화정사와 공동기획… 각계 목소리 기부로 희망 전해

BTN불교라디오(대표이사 구본일)와 법화정사(주지 도림)의 공동기획으로 방송되고 있는 BTN불교라디오 울림채널의 '두 손 모음'이 화제다.

'두 손 모음'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론, 스님의 간결하고도 감동적인 법문 및 유명 인사들의 응원 메시지까지 세상사는 이야기들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BTN불교라디오 프로그램 참여하는 연예인들과 사회 각계 각층의 명사들이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해 자신들의 사연을 제공하거나 목소리 기부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라이어밴드의 이동은 씨는 캠페인송 작곡에 재능기부를 하는 등 참여자들은 물론 청취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두 손 모음'을 제작하는 김아련 PD는 "'친구 같은 라디오'라는 컨셉에 맞게 BTN라디오 울림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좋은 친구를 대하듯 '희망'을 좀 더 친숙하게 여기면 좋겠다"며 제작취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공동기획으로 참여한 법화정사 주지 도림 스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활기차고 행복한 마음을 얻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법화정사와 BTN불교라디오가 공동 기획한 캠페인 '두 손 모음'은 BTN불교라디오 울림 앱을 통해 청취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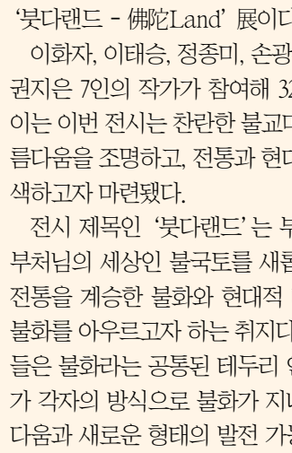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빙의치유(귀신들림) 상담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 목매어, 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 – 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